

## 코퍼스 기법을 활용한

# 문학 텍스트 직시어(Deixis) 번역 전략 비교 분석: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의 번역을 중심으로\*

조수연

(한국의국어대학교)

### 1. 서론

본 연구는 코퍼스 기법<sup>1)</sup>을 활용하여 문학 작품의 주인공을 가리키는 직시 (deixis) 표현을 분석, 화용론적 관점에서 번역의 문제를 고찰한다.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는 특이하게도 주요 등장인물, 즉 노인(산티아고)과 소년(마놀린)이 동일한 호칭(old man)을 사용하는 발화가 나타나고 그 의미는 화

\* 본 논문은 한국번역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공동 국제학술대회(2013. 10. 19)에서 발표한 초고를 수정,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유익한 논평을 주셨던 학술대회 참석 선생님들과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1) 코퍼스 언어학(Corpus Linguistics)에서 쓰는 기법(techniques)을 활용함으로써 번역 텍스트를 분석하고 차이점을 발견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Baker 1993)라는 의미로 사용한 표현이다.

용론적 접근을 통해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번역자는 화자(저자)의 의도를 추론, 해석하여 번역하게 된다. ‘old man’을 ‘노인’이나 ‘늙은이’로 번역할 수 없는 것은 분명 화용론적 현상이며, 이는 특히 호격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원작에서는 화자가 노인일 때나 소년일 때나 동일하게 ‘old man’이 호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도착어 표현은 서로 같지 않다. 따라서 번역본만을 읽은 독자는 애초에 원문에서 노인이냐 소년이 ‘노인(old man)’이라고 자칭 또는 타칭할 때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절대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노인이 스스로를 ‘old man’이라 지칭할 때는 ‘노인’, ‘늙은이’, ‘영감’ 등으로, 소년이 노인을 ‘old man’ 또는 ‘Santiago’라고 부를 때는 ‘할아버지’로 번역되기 때문에, 번역본을 읽는 한국 독자들은 동일한 직시어가 사용됨으로써 나타나는 원문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원작을 읽었는지 번역본을 읽었는지에 따라 작품에 설정된 소년과 노인의 관계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한국어 번역본을 비교해보고 해당 직시 표현이 번역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번역되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이커(Baker 1993) 이후 코퍼스 언어학이 번역학 연구에 도입되어<sup>2)</sup> 코퍼스의 비중에 따라 예문을 참조하는 수준에서 코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퀘스터(Koester 2010: 66-67)는 소규모의 특화된 코퍼스를 활용하는 연구를 제안한 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아주 구체적인 특정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자 할 때 소규모 코퍼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매우 적절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특정 현상에 대해 샘플링이 아닌 모든 발생 건수를 포착할 수 있고 동일한 연구자가 코퍼스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과 아울러 정성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을 소규모의 특화된 병렬(parallel), 비교(comparative) 코퍼스<sup>3)</sup>로 구축하여 특정 현상, 즉, ‘old

2) 베이커가 처음으로 코퍼스 언어학의 분석적 틀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투리(Toury)가 기술적 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DTS)의 아버지라면 베이커는 코퍼스 기반 번역학(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CTS)의 어머니이다(Laviosa 2002: 18).

man'의 직시 표현을 중심으로 예문을 참조하는 수준에서 총 5종의 번역서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한다. 아울러 소설 전체 문맥 속에서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old man'의 의미를 살펴보고, 번역 전략을 비교한다. 김정우(2013: 32)는 코퍼스 번역학의 원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성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코퍼스 분석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통계 수치 이면에 도사린 의미를 읽어내는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통해 문학 작품에 대한 화용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호격 인칭 직시어와 관련된 영한 번역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술어의 정의

그리스어로 가리키거나(pointing)나 지시하는 것(indicating)을 의미하는 직시(deixis)는 언어와 맥락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Levinson 1983: 54). 직시에는 기본적으로 인칭, 장소, 시간의 세 가지 범주가 존재한다. 직시어 또는 직시 표현은 간단하고 고정되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는 직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 술어의 번역을 두고 국내 학계에서는 화시(話示)와 직시(直示)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아직까지 번역 술어가 확정되지 않았다(민경모 2012: 43). 각각 사용된 한자어를 풀이해보면 화시는 대화 속에서 무엇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되며, 직시는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공히 발화(사건)의 문맥 자질이 언어의 어휘적, 문법적 수단에 의해 표현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문맥 자질은 의사소통 상황을 상정하며, 시간, 공간,

3)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면서(parallel) 복수의 번역문을 공시적, 통시적으로 비교(comparative)한다(Xiao & Yue, 2009: 240-241)는 의미이다. 번역문과 비번역문으로 구성되는 비교(comparable) 코퍼스와 번역 술어가 동일하여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본 논문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밝혀둔다.

참여자—인칭으로 표현되는—를 포괄한다. ‘화시’는 국어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언어학, 영어학을 비롯한 기타 응용 분야에서는 ‘직시’가 더욱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박철우 2011: 2), 타 언어의 연구 및 번역서 등에서는 주로 직시가 사용된다(민경모 2012: 44). 선행 연구와 학계의 관행을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시를 술어로 사용한다.

직시 표현은 담화 상황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지시 대상이 담화 상황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민경모 2012: 35). 직시어 현상은 지시 대상체에 대한 화자의 (청자와의 관계에서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 공간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나타내며 번역자의 관점 전환 및 개입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조의연 2009: 210). 발화 사건의 대화자/참여자가 누구인지 가리키는 인칭 직시는 일반적으로 첫째, 인칭의 전통적 문법적 범주에 의해, 그리고 경우에 따라 술어(predicate)와의 일치에 의해서, 둘째, 친족 용어, 직위, 인명 및 그 조합으로 표현되는 호격에 의해서 실현된다(Huang 2007: 136). 호격은 청자를 지칭하는 명사구이지만 술어의 논항에 속하지 않고, 운율적으로 분리된다(Huang 2007: 143). 호격은 다시 부르기(calls)/호출(summonses)과, 호칭(addresses)로 세분할 수 있는데 모든 호칭은 부르기/호출로 사용될 수 있지만, 부르기/호출은 몇몇 형태만이 호칭으로 사용될 수 있다(Levinson 1983: 70-1; Huang 2007: 143). 호출은 대부분 발화 앞에 나타나지만 호칭은 삽입구로 나타날 수도 있다(박철우 2011: 19).

일반적으로 호격은 사회적으로 표현되며(Huang, 2007: 143), 사회적 직시와 관련이 높다. 사회적 직시는 여러 개의 대안 중 특정 표현이 선택되는 상황을 설명한다(Yule 1996: 10). 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계가 인칭 직시, 특히 호격에서 존칭의 형태로 드러나며, 호칭은 화자와 청자 간의 신분 관계, 권력 관계, 사회적 거리를 반영한다(Huang 2007: 163). 호칭의 형태(forms of address)는 사회적 직시를 구현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방법이며, 인간의 언어에서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호칭은 없다(Huang 2007: 169-170).

## 2.2 선행 연구

베이커(2001)는 코퍼스를 활용하여 문학 번역자별 문체 비교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지(Ji 2009)는 코퍼스를 이용하여 돈키호테의 영중 번역에서 사용된

고어 표현을 중심으로 시대별, 번역자별 문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번역의 양상을 고찰하고 번역 전략 측면에서 어떤 번역본이 유사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학 작품에 대한 화용론적 분석을 시도한 예로는 수미야(Soumya 2013)가 스퍼버와 윌슨(Sperber & Wilson)의 관련성 원리(relevance theory)를 적용하여 소설 *The White Tiger*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간의 대화를 분석하고 함축된 의미를 고찰한 연구가 있다. 문학 번역에 대해 관련성 이론을 적용한 종강(Zhonggang 2006)은 내재된 정보(의미)를 문학 번역의 고충 요인으로 꼽았고 번역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단서나 힌트를 적극 활용할 것(clues-based interpretive use of language)을 제안했다. 국내에서는 한미애(2013)가 이청준의 단편소설 『눈길』을 대상으로 직시어의 한영번역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 한미애(2013)는 직시어가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관계, 등장인물과 독자와의 유대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직시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번역본에서 형상화되는 이야기의 틀과 서술자의 관점이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청준의 『눈길』에서는 서술자인 ‘나’와 ‘어머니’의 관계가 ‘나’와 ‘노인’으로 설정되어 있고,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그런데 한국어 원문에서 주인공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인칭 직시어 ‘노인’은 번역본에 따라 ‘the old woman’ 또는 ‘my mother’로 번역되었고, 이처럼 다른 직시어가 사용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같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노인과 바다』에서는 주인공 ‘산티아고’와 ‘마놀린’의 관계가 ‘노인’과 ‘소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노인’이라는 직시어가 『눈길』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번역 방향은 다르지만 ‘노인’이라는 직시어 표현의 번역 문제를 다룬 점, 번역 과정에서 등장인물 간의 관계에 전환이 발생하는 점에서 한미애(2013)의 연구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언어의 방향이 다르고, 둘째, 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셋째, 현상적으로 직시 표현이 서술(narration)이 아니라 대화(dialogue) 상에 드러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코퍼스 기법을 활용하여 총 5종의 번역본을 비교함으로써 정량적, 정성적으로 보다 균형적이고 발전된 분석을 시도했고, 현상의 기술이나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구별된다.

### 2.3 분석의 기본 원칙 및 접근법

본 연구에서는 화용론적 측면에서 분석 텍스트를 접근하고 최적의 관련성 원리(the principle of optimal relevance)에 따라서 번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최적의 관련성 원리는 스퍼버와 윌슨(1995)이 그라이스(Grice)의 대화 협력 원칙 및 대화 격률을 보다 간소화하여 발전시킨 이론이다. 발화에 내포된 의미는 최소의 정보 처리 노력으로 최대한의 인지적 효과를 얻으려는 관련성 원리에 따라 해석되며, 모든 발화가 맥락을 전제하고 있는 한 그 맥락에 대하여 관련성을 지닌다(강미경 2000: 21). 스퍼버와 윌슨의 관련성 원리를 번역에 적용한 구트(Gutt 1992: 41-42)에 의하면, 관련성 원리는 언제나 맥락 의존적이다. 구트(Gutt 1996: 248-250)는 번역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전달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맥락 정보가 언어 자원만큼 중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번역은 언어의 해석적 사용이며, 원문과 번역문의 관계는 (등가가 아니라) 해석적 다툼이라 보았다. 관련성 이론에서는 독자/청자가 화자의 의사소통 의도를 인식했는지의 여부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일반 요건이다(Gutt 2000: 190).

직시(deixis)는 맥락, 화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고 상대적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화용론의 범주에 속한다(Yule 1996: 16). 직시에는 화자(저자)의 주관성이 반영된다. 또한 지시하는 형태는 화자의 맥락에 결속되어 있다(Yule 1996: 9). 따라서 화자(저자)의 의도가 중요하며 청자(번역자)가 추론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그 의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담화 참여자가 공유하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스퍼버와 윌슨이 인지적 환경(cognitive environment)라고 부른—에 따라 최적의 관련성을 추구하는 해석이 이루어진다(Soumya 2013: 1). 본 논문은 이러한 화용론적인 현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번역의 문제를 살펴보고 번역자에 따라 어떻게 다른 번역 전략이 사용되었는지 기술하고 최적의 관련성 원리에 따라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라이스의 협력 이론이나 스퍼버와 윌슨의 관련성 이론이 규범이 아니라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기술하고 설명한 것과 같이 이를 번역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같은 접근법을 사용한다. 즉, 번역 현상을 기술하고 전략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되, 처방적이거나 규범적인 평가는 지양한다.

### 3. 사례 분석

#### 3.1 분석 텍스트

『노인과 바다』는 헤밍웨이가 1952년에 쓴 작품이며, 한국어로는 1958년 황찬호에 의해 최초 번역<sup>4)</sup>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등 당시의 격동적인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비교적 빨리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에 헤밍웨이의 사후 50년이 도래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한시적 유예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다수의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김옥동(2013: 131-159)은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총 7종의 번역본을 선정하여 첫 단락만을 대상으로 번역을 평가하고 저자의 번역과 비교한 바 있다<sup>5)</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중기의 번역과 최근의 번역을 소규모의 특화된 병렬, 비교 코퍼스로 구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김옥동(2013)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선택한 번역본은 총 5종으로 황찬호(1958), 김석주(1959), 황동주(1975), 이인규(2012), 김옥동(2012)이다. 시대별, 역자별 차이를 고려하여 50년대 말, 70년대 중반, 최근의 번역본을 고루 선택했다.

‘노인(old man)’은 주인공 ‘산티아고’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인칭 직시어이다.<sup>6)</sup> 워드스미스(WordSmith)<sup>7)</sup>의 콘코던스(Concordance) 기능을 사용하여 원문을 분석한 결과, 소설 속에서 ‘old man’이라는 반복구(cluster)는 제목을 포함하여 총 229번 등장한다. 연어 관계를 살펴보면, 총 229번 중 202번은 L1(단어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첫 번째 자리)에 ‘the’가 오고 R1(단어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첫 번째 자리)에 ‘said’가 49번,

4) 김옥동(2013: 134)은 김석주(1959)를 최초의 번역본으로 보았으나 황찬호(1958)의 번역본이 출판연도가 더 앞서므로 현존하는 최초의 번역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사료된다.

5) 김옥동(2013)이 사용한 번역본은 저자의 번역본(2012) 외에 김석주(1959), 김병철(1967), 황동주(1975), 이종인(2012), 장경렬(2012), 이인규(2012), 베스트트랜스(2012)이다.

6) 대명사(he, his, him)도 인칭 직시어에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7) 워드스미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코퍼스 분석 도구 중 하나이며 특정 표현을 중심에 두고 일정 순서대로 배열하는 콘코던스(Concordance)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고광윤 2009: 2-3).

‘was’가 18번, ‘s’가 16번이다. 워드스미스의 또 다른 기능인 워드리스트(WordList)를 이용하여 단어 목록을 생성한 결과에서도 ‘the old man’, ‘the old man said,’ ‘the old man’s’ 등이 고빈도 반복구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관사 ‘a’나 정관사 ‘the’가 선행한 경우, 호격으로 사용된 경우, 산티아고(Santiago)라는 이름이 직접 사용되는 경우 모두 맥락상 주인공을 지칭하므로 직시어로 분류하고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1〉 ‘노인’의 직시어 하위 분류 통계

직시어 표현	빈도	정의
the old man	202	정관사 선행 명사구 (Definite Noun Phrase)
a/an (adjective) old man	7	부정관사 선행 명사구 (Indefinite Noun Phrase)
(,) old man	20	호격
Santiago	3	인명
	232	합계

### 3.2 분류 및 전략 비교 분석

선정한 5종의 번역본에서 ‘노인’에 대한 직시 표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재범(2013)의 문화소 번역 전략 분류를 준용했다. 조재범(2013)은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번역 전략을 ‘유지(보존)’, ‘대체’, ‘생략’으로 분류했다<sup>8)</sup>.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보완’을 추가하여 총 4가지로 분류했다. ‘old man’을 ‘노인’, ‘늙은이’로 번역한 것, ‘Santiago’를 ‘산티아고’로 음독하여 번역한 것은 보존으로 보았고, 소년이 노인을 ‘old man’이라고 부른 것을 ‘할아버지’로 번역한 것과 대명사 ‘그’의 사용은 대체로 분류했다<sup>9)</sup>. 생략은 문맥상 유추가 가능하

8) 조재범(2013: 248)에서는 preservation, substitution, omission이라는 영문 용어가 사용되었다. Baker(2011: 29)는 문화대체어 번역(translation by cultural substitution)을 전문 번역자의 전략 중 하나로 정의했다. 즉, 동일한 명제적 의미를 가진 문화소나 표현이 목표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을 때 독자에게 유사한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할 수 있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9) ‘보존’과 ‘대체’의 분류 기준과 관련해서는 역방향으로 번역했을 때 같은 단어로 번역될 개연성을 고려했다. 즉, ‘old man’을 ‘노인’으로 번역한 후 역방향으로 다시 번



다고 생각하고 유표적으로 번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보완은 ‘Santiago’를 ‘산티아고 할아버지’로 번역한 경우, 호격의 ‘old man’에 ‘이’와 같은 지시어 나, ‘여보게’와 같은 감탄사를 추가하여 번역한 경우이다.

〈표2〉 번역본 별 번역 전략 통계 비교

번역본 직시어 하위 분류	번역 전략				
	대체	보완	보존	생략	합계
<b>TT1 (황찬호, 1958)</b>	<b>15</b>	<b>8</b>	<b>179</b>	<b>30</b>	<b>232</b>
정관사 선행 명사구	8	1	164	29	202
인명		2	1		3
부정관사 선행 명사구			7		7
호격	7	5	7	1	20
<b>TT2 (김석주, 1959)</b>	<b>8</b>	<b>12</b>	<b>194</b>	<b>18</b>	<b>232</b>
정관사 선행 명사구		1	185	16	202
인명		3			3
부정관사 선행 명사구	1		6		7
호격	7	8	3	2	20
<b>TT3 (황동규, 1975)</b>	<b>5</b>	<b>10</b>	<b>175</b>	<b>42</b>	<b>232</b>
정관사 선행 명사구	1		163	38	202
인명		3			3
부정관사 선행 명사구			7		7
호격	4	7	5	4	20
<b>TT4 (이인규, 2012)</b>	<b>7</b>	<b>15</b>	<b>199</b>	<b>11</b>	<b>232</b>
정관사 선행 명사구			192	10	202
인명		3			3
부정관사 선행 명사구			7		7
호격	7	12		1	20
<b>TT5 (김옥동, 2012)</b>	<b>10</b>	<b>16</b>	<b>193</b>	<b>13</b>	<b>232</b>

역한다면 번역자는 ‘노인’을 원문과 동일한 표현인 ‘old man’으로 별 고민 없이 번역할 것이다. 반면 ‘할아버지’는 ‘old man’으로 바로 역번역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번역 전략으로서의 ‘대체’는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아닌 이차적 또는 대안적 표현으로의 번역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단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구분의 목적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두 유효한 번역 전략이다.

정관사 선행 명사구	3		187	12	202
인명		3			3
부정관사 선행 명사구		1	6		7
호격	7	12		1	20
<b>총합계</b>	<b>45</b>	<b>61</b>	<b>940</b>	<b>114</b>	<b>1160</b>

위의 [표2]는 각 번역본에서 직시어 ‘old man’이 [표1]의 세분화 영역별로 어떤 전략에 따라 번역되었는지를 정리한 교차표이다. TT1에서 TT5는 5종의 번역본을 의미한다. 구분이 용이하도록 괄호 안에 번역자와 출판연도를 병기하였다. 번역 전략 측면에서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번역본에서 호격 외에는 대체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인명의 경우에는 보완 전략, 부정관사 선행 명사구에 대해서는 보존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다. 정관사 선행 명사구의 경우 보존 전략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생략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한국어에서는 문맥상 충분히 유추가 가능할 때 주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생략 역시 적절한 번역 전략일 수 있다. 정관사 또는 부정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의 경우 문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덧붙이거나 대체 없이 원문의 표현을 보존하는 전략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인명의 경우는 한국어의 특성상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 없으므로 보완 전략이 많이 사용되었다. 호격에 대해서는 번역본 별로 다양한 전략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가 용이하도록 [표3]에 다시 요약하였다. 자칭일 때는 보존, 타칭일 때는 대체나 보완이 주로 사용되었고 이는 도착어인 한국어의 언어 사용 관습을 반영한다.

[표3]에 드러난 바와 같이 호격에 대해서 가장 최근의 번역본인 TT4와 TT5에서는 보존 전략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두 번역본 모두 총 20건 중 대체가 7회, 보완이 12회, 생략이 1회 등장하여, 호격에 대한 번역 전략 측면에서는 완전히 일치하였다.

〈표3〉 번역본 별 호격 번역 전략 통계 비교

번역본	번역 전략				
	대체	보완	보존	생략	총합계
TT1	7	5	7	1	20
TT2	7	8	3	2	20
TT3	4	7	5	4	20
TT4	7	12	0	1	20
TT5	7	12	0	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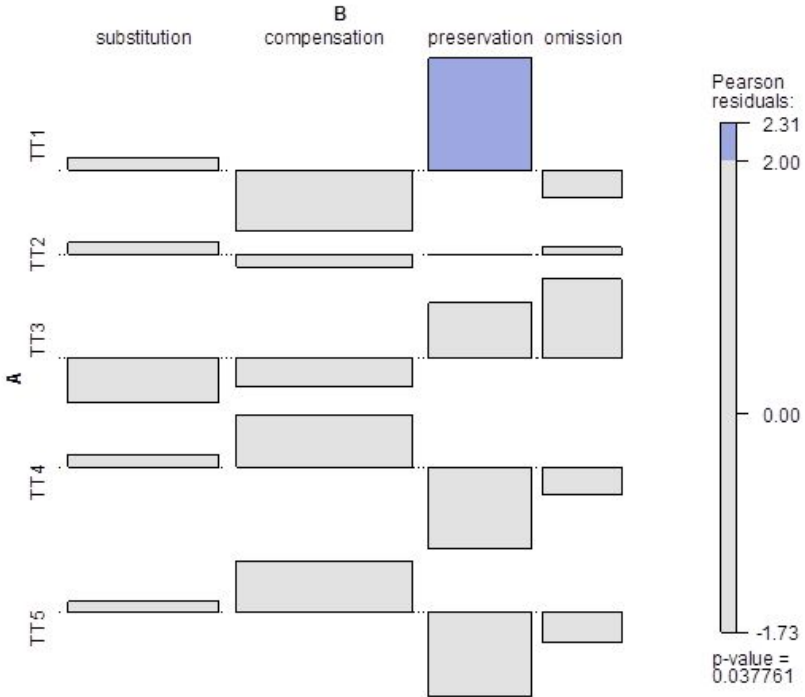
앞서 [표2]에서도 TT4와 TT5는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반면 다른 번역본에서는 대체, 보완, 보존, 생략이 고루 나타났다. TT1에서 가장 생략이 적었으며 보존 전략이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TT2와 TT3은 보완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번역자마다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러한 번역 양상이 단순히 언어적 차이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그러한 차이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것인지는 통계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1]은 변수 간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써 [표3]의 교차표를 이용하여 호격에 대한 번역본별 번역 전략 사용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통계 분석 도구로는 R<sup>10)</sup>을 사용했고, 피어슨 카이제곱검정(Pearson's Chi-Squared Test)<sup>11)</sup>을 실시한 결과, 자유도(df)<sup>12)</sup>=12, 카이제곱 값<sup>13)</sup>=21.9785, P값(p-value)<sup>14)</sup>=0.03776으로 변수 간 상호연관성이 확인되었다.

- 10) 무료 오픈소스 통계 시스템(<http://www.r-project.org>)으로서 통계, 그래픽 작업, 통계적 프로그래밍에 효과적(Teator 2011: xiii)이며 코퍼스 언어학에서 많이 사용된다.
- 11) 카이제곱분포를 참조하여 결과를 평가하는 통계적 절차로서 여러 카이제곱검정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http://en.wikipedia.org/wiki/Pearson's\\_chi-squared\\_test](http://en.wikipedia.org/wiki/Pearson's_chi-squared_test)). 1개 또는 2개의 명목변수의 빈도 분포를 분석하는 통계 검정법이다.
- 12) 영가설 또는 기대빈도를 결정할 때 존재하는 자유로운 선택의 수를 측정한 것이다. (열의 개수-1)(행의 개수-1)로 구한다(김광재, 김효동 2009: 694-696, 709).
- 13) 카이제곱 값은  $\chi^2 = \sum (\text{관측값}(\text{observed frequency}) - \text{기댓값}(\text{expected frequency}))^2 / \text{기댓값}(\text{expected frequency})$ 으로 계산([http://en.wikipedia.org/wiki/Chi-squared\\_test](http://en.wikipedia.org/wiki/Chi-squared_test))한다. 관측빈도와 기대빈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때, 카이스퀘어 값은 커지고, 데이터가 가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김광재, 김효동 2009: 694).
- 14) P값이란 실제 관측된 것과 동일한 테스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다

〈그림1〉 연관성 그래프(Association Graph)

### Translation Strategy by TT



TT1에서 보존 전략을 유난히 많이 사용한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림1]에서 중앙의 가로 점선은 기대 빈도를 나타내며,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변수 간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카이제곱검정이다. 그래프에서 파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피어슨 잔존치가  $\pm 2$ 를 넘어가는 경우로서, 이 부분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전체 데이터의 P값에 영향을 줌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sup>15)</sup>.

[http://en.wikipedia.org/wiki/P\\_value](http://en.wikipedia.org/wiki/P_value)). 유의수준이 0.05 이하라는 것은 그 가능성이 100번 중에 5번 이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P값으로 보고한다.

15) 카이제곱검정은 2개의 명목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가장 간단하고 대표적인 방식이다. 로그선형검정이나 피셔의 정확검정법과 같이 보다 정교한 방법도 있으나 본

번역 전략에 따른 번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표4〉 번역 전략 사용 예시

원문	번역 (번역본)	번역 전략
(1)“Good luck, <u>old man</u> .”	할아버지 (TT1-5)	대체
(2)“Don’t think, <u>old man</u> ,” he said to himself.	여보 늙은이 (TT1) 야 이 노인아 (TT2) 여보 노인 (TT3) 이보게, 늙은이 (TT4) 이 늙은이야 (TT5)	보완(보존)
(3)“Get to work, <u>old man</u> ,” he said.	할아범 (TT1) 영감 (TT2) 노인 (TT3)	대체 보존 보존
(4)“You get your hands well, <u>old man</u> .”	할아버지는 손이나 잘 고쳐 두세요 (TT1) 할아버지는 손이나 빨리 닦도록 하세요 (TT2) 손이나 고치세요 (TT3)	생략(대체) 생략(대체) 생략

첫 번째 예문은 홀로 고기잡이를 떠나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는 소년의 발화이다. 모두 ‘할아버지’로 대체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예문은 노인이 고기와 사투를 벌이며 자신에게 한 발화이다. 번역본마다 각기 다르게 번역되었으나 동일한 전략이 사용되었다. ‘여보’, ‘야’, ‘이’ 등 감탄사나 지시어를 추가하여 의미를 보완했으며 호출과 호칭을 함께 사용하여 효과를 높였다. 모두 ‘노인’ 또는 ‘늙은이’로 번역했으므로 기본적으로 보존 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예문 역시 노인의 독백인데, TT1은 대체 전략을, TT2와 TT3은 보존 전략을 사용했다. TT4와 TT5에서는 보완 전략이 사용되었다<sup>16)</sup>. TT1에서 대체 전략을 사용한 것이 흥미롭다. 4.2 대안적 번역을 위한 제언에서 추가 기술하겠지만, 자칭, 타칭에 대해 동일한 번역 전략을 사용할 수

연구의 경우 샘플 사이즈가 작고 통계적 검증이 추가 되는 연구가 아니므로 카이제곱검정을 선택했음을 밝힌다.

16) 이에 대해서는 아래 3.3 추가적인 분석 및 번역 실례에서 [표6]을 통해 번역문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 예문은 소설의 말미에서 노인과 소년이 재회한 후 이루어진 소년의 발화이며, 모든 번역본에서 호격이 생략되었다. 2인칭 주어가 이미 ‘할아버지’라고 (대체) 번역되었기 때문에 반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마찬가지로 2인칭 주어를 생략하고 직시 표현을 살려주는 번역(“손이나 잘 고쳐 두세요, 할아버지”)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T3은 2인칭 주어를 생략하고 직시 표현 없이 “손이나 고치세요”로 번역했는데 별로 친절하게 들리지 않는다. 살아 돌아온 노인이 너무나 고맙고 만신창이가 된 손을 보고 소년이 울었다는 내용이 앞에 서술된 점을 고려할 때 맥락을 잘 살린 번역이라 보기 어렵다. “손이나 고치세요, 할아버지”로 직시 표현을 추가해주는 것만으로도 친근감을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TT4와 TT5의 번역 전략도 생략으로 분류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소단원에서 [표6]을 통해 번역문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 3.3 추가적인 분석 및 번역 실례

먼저 소년의 발화와 노인의 발화 간 번역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년의 발화는 번역자간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 노인의 발화는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었다. 소년의 발화에서는 모든 번역자가 ‘old man’을 ‘할아버지’로 번역하거나 생략했다. 다른 대안은 없었다. 소년이 노인의 이름, ‘Santiago’를 직접 부른 것이 세 번 나오는데 대부분 ‘할아버지’로 번역되었다<sup>17)</sup>. 다만 TT1은 ‘산티아고’ 또는 ‘산티아고 할아버지’로 번역했고, TT2는 ‘산티아고 할아버지!’와 ‘산디애고 영감’으로 다르게 번역했다. 다른 번역본은 모두 ‘산티아고 할아버지’ 또는 ‘샌티아고 할아버지’로 번역했다. TT2는 노인의 발화에서도 ‘영감’이 9회 사용되었다. 따라서 소년과 노인의 발화에서 ‘영감’이라는 동일한 직시 표현이 적어도 한 번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노인의 발화에서는 다음의 [표5]와 같이 번역본에 따라 다양한 어휘로 번역되었다. 최근 번역본으로 갈수록 동일한 전략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가장 최근 번역본인 2012년의 TT4와 TT5이 호격에 대한 번역 전략만이 아니라 어휘 선택에서도 완전히

17) 세 번 중 두 번은 노인과의 대화에서 호격으로 사용되고 마지막 한 번은 소설 말미에 제 3자와의 대화에서 등장한다(“Tell them not to bother Santiago”).

일치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표5〉 노인의 발화에 등장하는 ‘old man’의 번역 양상

번역본	번역어(횟수)
TT1	‘노인’(1), ‘늙은이’(6), ‘할아버지’(5)
TT2	‘노인’(2), ‘영감’(9), 생략(1)
TT3	‘노인’(11), ‘노인장’(1)
TT4-5	‘늙은이’(12)

앞서 [표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TT4와 TT5는 번역 전략 면에서 대체 7회, 보완 12회, 보존 0회, 생략 1회로 동일했다. 대체 7회, 생략 1회는 모두 소년의 발화에 해당하며 ‘Santiago’나 ‘old man’이 ‘할아버지’로 번역되거나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12회는 노인의 발화에 등장하는 ‘old man’의 번역이다. [표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TT4와 TT5에서 사용된 번역어는 ‘늙은이’이며, 그 자체로는 ‘보존’에 해당하나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감탄사나 지시어와 함께 사용되어서 모두 ‘보완’으로 분류가 되었다. 이는 번역 전략을 분류하는 단위에 따라 모두 ‘보존’이 될 수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최근 번역본의 번역 사례이다([표6] 참조). 어휘의 본래 의미를 유지, 보존하면서 일관되게 번역하되 감탄사나 지시어, 부가의문문(tag question)을 동원해 발화 효과를 높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첫 번째 예문에서 TT4는 감탄사 ‘자’ TT5는 지시어 ‘이’가 추가되었고, 두 번째 예문에서 TT4는 ‘아셨죠?’라는 부가의문문이 사용되었다. 이는 직시 표현의 대체 또는 의미의 보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6〉 최근본 번역 사례

원문	번역 (번역본)	번역 전략
(1)“Get to work, <u>old man</u> ,” he said.	자, 일을 시작하세요, 늙은이 (TT4) 이 늙은이야, 어서 일을 시작하지 (TT5)	보완 보완
(2)“You get your hands well, <u>old man</u> .”	할아버지는 손이나 잘 닦도록 하세요, 아셨죠? (TT4) 할아버지는 손이나 어서 치료하도록 하세요 (TT5)	생략(대체/보완) 생략(대체)

[표6]에서 첫 번째 예문은 노인의 발화이며, 두 번째 예문은 소년의 발화이다. 원문만 봐서는 노인의 발화인지 소년의 발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문체상 차이가 없다. 반면 번역문에서는 노인의 발화는 반말로, 소년의 발화는 존대법으로 번역했으며 ‘old man’이라는 동일한 호격 표현이 ‘늙은이’와 ‘할아버지’로 달리 번역되었다. 원문과 번역문 간에 동일한 발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 4. 논의

### 4.1 화용론적 측면에서 본 번역의 문제

앞서 [표4]와 [표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이 스스로를 ‘old man’이라고 지칭했을 때와 소년이 노인을 ‘old man’이라고 지칭했을 때 상이한 번역 양상이 나타난다. 노인이 자신을 지칭할 때는 ‘늙은이’, ‘할아범’, ‘영감’, ‘노인’, ‘노인장’으로 번역한 반면, 소년이 노인을 지칭할 때는 모두 ‘할아버지’ 또는 ‘산티아고 할아버지’로 번역하거나 생략했다. 이러한 번역 양상은 도착어인 한국어 문화권의 공손성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소년은 노인을 ‘노인’이나 ‘늙은이’라 칭할 수 없고,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 없다. 만약 번역에서 소년의 발화에 ‘노인’이나 ‘늙은이’를 사용하고 이름을 그대로 부른다면 그것은 불손하고 불량한 태도를 연상시킨다.<sup>18)</sup> 한국이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의 대체 표현을 찾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서울시는 2012년 ‘노인’의 대체 표현으로 ‘어르신’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조미현 2013). 그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함의를 가진다.

이처럼 도착어의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노인과 소년의 유대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직시어 ‘old man’은 번역을 통해 독자들에게 호

18) 번역본 독자가 ‘할아버지’, ‘늙은이’ 등 상이한 호칭 사용에 어떻게 느끼는지는 독자 반응설문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웠다. 영어의 ‘old man’은 비하하는 의미일 수 있지만 친근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한국어로 옮길 때 ‘노인’이나 ‘늙은이’라고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한미애(2013)가 분석한 이청준의 소설에서 ‘노인’은 화자와 어머니 사이의 심리적 거리, 부정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노인과 바다』에서 소년이 노인을 ‘old man’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대등하고 친밀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소년이 노인에게 맥주를 사겠다고 했을 때 노인이 어부끼리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이나 소년이 노인을 대하는 말투나 행동을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대등하며, 둘 사이에는 어부로서의 연대 의식과 오랜 세월 함께 고락을 같이 해 온 동지애와 같은 깊은 유대감이 존재한다. 마놀린은 외롭고 쓸쓸한 노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대의식과 상호의존의 세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김옥동 2013: 68). 노인의 자칭은 ‘노인’이나 ‘늙은이’로 번역하면서 소년이 노인을 부르는 타칭은 ‘할아버지’로 번역하면 친밀감이 전달될 수 있어도 동일한 호칭에 암시된 두 사람 간의 연대 의식, 유대 관계는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서울시의 방침처럼 ‘어르신’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친밀감마저 사라진다.

작품 전체를 시, 공간적 맥락이라고 볼 때, 호격 ‘old man’은 소설의 앞부분 소년의 담화에서 처음 나오고 노인이 바다에서 혼자 고기와 사투를 벌일 때 독백 속에서 사용되었다가 끝부분 소년의 담화에 다시 등장한다. 노인의 독백 속에서 ‘old man’은 마치 소년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노인은 소년이 여기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가 혼잣말을 시작하고,<sup>19)</sup> 마치 소년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old man’이라고 부른다.<sup>20)</sup> 이처럼 소설 속에서 ‘old man’은 노인과 소년을 이어주는 핵심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총 5종의 번역본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어 번역 텍스트에서는 그러한 연관성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헤밍웨이 문체는 직접적이기보다는 암시적이다(박정호 2011). 따라서 독자

19) 산티아고는 홀로 청새치와 싸우면서 여러 번 소년을 그리워한다. 그 애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6번 정도 혼잣말을 한다(김옥동 2013: 71-72).

20) 이러한 노인의 발화는 총 12회 등장한다. 이는 소년이 전반부에 5회, 후반부에 3회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횟수다.

의 상상력과 추론이 없이는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한 독자의 상상력과 추론을 지원할 수 있는 번역이 관련성이 높고 화용론적 측면에서 충실한 번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년이 노인을 부르는 ‘old man’은 한국어의 공손성과 경어법으로 인해 번역 과정에서 보존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등장인물 간에 설정된 내밀한 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온전히 독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에 최적의 관련성 원리에 따라 효과적인 번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과 고려사항을 계속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 4.2 대안적 번역을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한 5종의 번역본에서 ‘old man’은 노인의 자칭일 경우 ‘늙은이’, ‘할아버지’, ‘영감’, ‘노인’, ‘노인장’으로, 소년이 노인을 지칭할 때는 ‘할아버지’로 번역되거나 생략됐다. 원문에서는 동일한 표현이지만 화자에 따라 다른 전략, 다른 번역어가 사용된 것이다. 또한 노인과 소년 간의 친밀하고 대등한 관계가 적어도 호격 표현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번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는 기존의 번역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기 다른 전략을 사용하되 공손성, 친근감, 유대관계를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대응어를 선택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은 공손성은 높지만 친밀도는 낮은 대응어이며, ‘노인’이나 ‘늙은이’보다는 ‘영감님’이 공손성이나 친밀도가 더 높은 대응어이다. 또한 ‘노인’ 보다는 ‘노인장’이나 ‘노인 양반’이, ‘할아버지’나 ‘산티아고’ 보다는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더 공손하고 친근한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번역자는 이러한 보완 전략을 사용하여 관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노인의 발화의 관점에서 또는 소년의 발화의 관점에서 호격의 일치를 시도하는 것이다. 노인이 발화에 대해 사용된 ‘늙은이’를 소년의 발화에도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6]의 최근본 번역 사례에 대해서 ‘할아버지’를 ‘늙은이’로 바꾸고 존대법을 반말로 바꾸어 보았다. 표에서 음영처리한 부분이다.

(표7) 노인의 발화에 맞춘 호격 일치의 예

원문	번역 (번역본)	번역 전략
(1) "Get to work, <u>old man</u> ," he said.	자, 일을 시작하세, 늙은이 (TT4) 이 늙은이야, 어서 일을 시작하지 (TT5)	보완 보완
(2) "You get your hands well, <u>old man</u> ."	할아버지는 손이나 잘 닦도록 하세요, 아셨 죠? (TT4) 할아버지는 손이나 어서 치료하도록 하세 요 (TT5)	생략(대체/보완) 생략(대체)
	손이나 잘 닦도록 해, 늙은이 (TT4) 손이나 어서 치료하도록 해, 늙은이 (TT5)	보존 보존

이처럼 직설적으로 ‘늙은이’ ‘늙은 영감’으로 번역할 경우 나중에 ‘old fish’를 ‘늙은 고기’로 번역해서 연결고리를 남길 수 있고,<sup>21)</sup> 그렇게 함으로써 원작에서 동일한 호격이 사용됐다는 것을 암시적, 명시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번역을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독자반응연구를 통해 따로 검증되어야 한다. 다만 의도했던 친근하고 대등한 관계가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미지수이다. 또한 ‘늙은이’라는 번역어가 한국 사회에서 기대되는 공손성 규범에 맞지 않아 독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는 소년의 발화에 맞춰 호격을 통일해보는 것인데, TT1에서 ‘할아범’이 사용되었던 것에서 착안하여<sup>22)</sup> [표6]의 번역을 아래와 같

21) ‘old man’의 경우 작품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호칭이 변화 없이 사용되었는데, 흥미롭게도 ‘fish’에 대해서는 호칭의 변화가 있었다. 노인이 고기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이 묘사되는 과정에서 고기에 대한 호격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fish’이다가 나중에는 ‘old fish’로 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노인이 여러 날 상어 떼로부터 고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중국에는 고기를 잡은 것을 후회하며 마지막으로 부를 때 ‘old fish’라는 호격이 등장함으로써 노인이 고기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번역은 ‘고기야’가 ‘늙은 고기야’가 되며 그 자체로는 번역상 어려울 것이 없다. 다만, ‘old man’과 ‘old fish’의 연결 고리를 살려주는 문제가 남을 뿐이다.

22) [표4]의 번역 전략 사용 예시에서 3번째 예문에 대해 TT1이 대체 전략을 사용해서 ‘할아범’을 사용한 예가 있었다. TT1의 경우 ‘old man’은 소년의 발화에 대해서는 ‘할아버지’(7회)로 번역하거나 생략(1회)했고, 노인의 발화에 대해서는 ‘노인’(1회), ‘늙은이’(6회), ‘할아범’(5회)이 고루 사용되었다. 할아범이 5회나 사용되었고 거부감

이 수정해보았다.

〈표8〉 소년의 발화에 맞춘 호격 일치 예

원문	번역 (번역본)	번역 전략
(1)“Get to work, <u>old man</u> ,” he said.	자, 일을 시작하세, 늙은이 (TT4) 이 늙은이야, 어서 일을 시작하지 (TT5)	보완 보완
	자, 일을 시작하세, 할아범 (TT4) 이 할아범야, 어서 일을 시작하지 (TT5)	대체 대체
(2)“You get your hands well, <u>old man</u> .”	할아버지는 손이나 잘 닦도록 하세요, 아셨죠? (TT4)	생략(대체/보완)
	할아버지는 손이나 어서 치료하도록 하세요 (TT5)	생략(대체)
	할아버지는 손이나 잘 닦도록 해, 알았지? (TT4)	대체
	할아버지는 손이나 어서 치료하도록 해 (TT5)	대체
	할아범은 손이나 잘 닦도록 해, 알았지? (TT4)	대체
	할아범은 손이나 어서 치료하도록 해 (TT5)	대체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을 보면 ‘할아범’은 ‘지체가 낮은 늙은 남자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다. 소년의 발화에 ‘할아범’을 사용하면 마치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그로 인해 노인과 소년의 사회적 관계나 지위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어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같은 전략(대체)을 사용하는 정도로 타협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즉, 소년의 발화에서는 ‘할아버지’를, 노인의 발화에서는 ‘할아범’을, 호격 ‘old man’의 번역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의 입장을 투사한 호격을 사용함으로써 노인의 독백을 읽을 때 독자가 소년의 발화를 연상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의도한 효과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일 뿐 번역자의 의도가 성공적으로 기대 효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포기하는 것도 번역자의 옳은 선택이고 전략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아니지만 직시어를 번역할 때는 존대어의 사용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노인과 소년 사이에 대등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직

없이 잘 읽힌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년의 발화와 노인의 발화에 모두 대체 전략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어가 사용된다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보다 대등하고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고 싶다면, 대화문에서 존칭어미(‘-세요’)를 빼고 반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직시어 선택에 따라 문장의 전체적인 존대 수준을 맞춰야 할 것이다. 위의 [표7]과 [표8]에서 호격을 바꿔줄 때 존칭을 반말로 바꿔준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자는 직시 표현 중에서 특히 호격을 번역할 때, 그것이 자칭인지 타칭인지, 대화 상황이라면 참여자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인지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과 화자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손성과 친밀도를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어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같은 호격 표현이라도 화자에 따라 또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다른 전략으로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여 독자가 같은 표현이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힌트를 남겨 둘 것이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을 지칭하는 인칭 직시어, ‘old man’의 번역에 대해 화용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관련성의 측면에서 고려할 점을 살펴보았다. 정량적 분석 결과, 분석 텍스트로 사용한 총 5종의 번역본은 번역 전략 면에서 호격을 제외하고 공통된 양상을 보였다. 호격과 관련하여 최근 번역본은 보존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대체나 보완 전략을 사용했으며 보완 전략의 빈도가 월등히 높았다. 호격에 대한 번역 전략은 번역자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며 번역본과 번역 전략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이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노인과 바다』에서 호격으로 사용된 인칭 직시어, ‘old man’은 맥락 정보가 중요한 발화이며 주인공의 심리 상태, 주요 등장인물 간의 유대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old man’이라는 호칭의 공통적인 사용에서 드러난 바, 노인과 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동등하며, 노인과 소년의 심리적 거리는 매우 가깝다. 소년이 노인을 ‘old man’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경심과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고 소년과 노인 간의 특별한 유대감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노인이 자신

을 ‘old man’이라고 부를 때는 소년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과 소년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시 표현은 두 언어 간 사회적, 문화적 차이와 경어법, 공손성의 문제로 인해 최적의 관련성 측면에서 볼 때 효과적으로 번역되기 어려웠다. 직접적으로(유표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면 적어도 추론이 가능하도록 도움이 될 만한 실마리를 남겨 두는 번역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에 대한 인칭 직시어 중 호격에서 번역본 별로 다양한 전략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코퍼스 기법을 활용한 화용론적 접근이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시어는 대개 매우 간단한 표현이고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언제나 발화된 것 이상의 의미를 전달한다(Yule 1996: 16). 그래서 번역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인 독서에서 저자의 의도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것이 독자의 몫이듯,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번역자의 해석과 선택에 달려있다. 다만, 독자의 해석과 추론을 돕기 위한 실마리를 남겨두고 힌트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시도한 분석과 대안의 모색은 그러한 번역자의 노력에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언어는 그 언어가 표상하는 사회와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발화의 맥락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한 번역의 여러 문제에 대한 화용론적 측면의 연구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미경 (2000) 「관련성 원리에 입각한 대화 함축과 관례 함축」, 『언어연구』 16(2): 5-22.
- 고광윤 (2009) 「코퍼스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의 선택」, 『영어학연구』 1-22.
- 김광재, 김효동, 옴김 (2009) 『사회과학 통계방법론의 핵심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Gravetter, Frederick J. and Wallnau, Larry B. (2008) *Statistic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8th ed. Cengage Learning.)
- 김옥동 (2013)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다시 읽다』, 서울: 이숲에

올빼미.

- 김정우 (2013) 「코퍼스기반 번역학 연구에서 정량적 인자가 정성적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 『번역학연구』 14(1): 31-98.
- 민경모 (2012) 「Deixis의 개념 정립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 의미학』 37: 27-52.
- 박정호 (2011) 「『노인과 바다』의 문체 연구」, 『신영어영문학』 49: 49-64.
- 박철우 (2011) 「화시의 기능과 체계에 대한 고찰」, 『한국어어미학』 36: 1-37.
- 조미현 (2013.06.19) 「경로문화 (敬老文化)」,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31275> (검색일: 2013.06.20)
- 조의연 (2009) 「병렬 말뭉치에 기반한 번역학 연구: 『호밀밭의 파수꾼』과 『모순』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0(2): 207-246.
- 조재범 (2013) 「문화소와 자막 번역」, 『한국통역번역학회(KSCI) 창립 15주년 기념 전문가/학자 특강 시리즈 발표논문집』 245-252.
- 한미애 (2013) 「소설 텍스트에서 직시어 번역양상」, 『번역학연구』 14(1): 389-410.
- Baker, Mona (1993) ‘Corpu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Text and Technology: In Honour of John Sinclair*: 233-250.
- \_\_\_\_\_ (2001) ‘Towards a Methodology for Investigating the Style of a Literary Translator’, *Target* 12(2): 241-266.
- \_\_\_\_\_ (2011)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2nd ed)*, Abingdon/New York: Routledge.
- Gutt, Ernst-August (1992) *Relevance Theory: A Guide to Successful Communication in Translation*,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_\_\_\_\_ (1996) Implicit Information in Literary Translation: A Relevance-Theoretic Perspective, *Target* 8(2): 239-256.
- \_\_\_\_\_ (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Boston: St. Jerome Publishing.
- Huang, Yan (2007) *Pragmatics*, Oxford: Oxford UP.
- Ji, Meng (2009) ‘Corpus Stylistics in Translation Studies: Two Modern Chinese Translations of Don Quijote’, *Language and Literature* 18(1): 61-73.

- Koester, Almut (2010) 'Building Small Specialised Corpora', *The Routledge Handbook of Corpus Linguistics*. London/New York: Routledge, 66-79.
- Levinson, Stephen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P.
- Laviosa, Sara (2002)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pplications* (Vol. 17). Rodopi.
- Soumya, Shashwati (2013) 'Text, Context and the Theory of Relevance', *The Criterion* 4(2): 1-4. <http://www.the-criterion.com/V4/n2/Soumya.pdf> (검색일: 2013.12.30.)
-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 (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 Cambridge: Harvard UP.
- Teator, Paul (2011) *R Cookbook*. Sebastopol: O'Reilly Media Inc.
- Yule, George (1996) *Pragmatics*, Oxford: Oxford UP.
- Xiao, Richard and Ming Yue (2009) 'Using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the State of the Art', *Contemporary Corpus Linguistics*. London: Continuum, 237-262.
- Zhonggang, Sang (2006) 'A Relevance Theory Perspective on Translating the Implicit Information in Literary Texts', *Journal of Translation* 2(2): 43-60.  
[http://en.wikipedia.org/wiki/Chi-squared\\_test](http://en.wikipedia.org/wiki/Chi-squared_test) (검색일: 2014.03.06.)  
[http://en.wikipedia.org/wiki/P\\_value](http://en.wikipedia.org/wiki/P_value) (검색일: 2014.03.06.)  
[http://en.wikipedia.org/wiki/Pearson's\\_chi-squared\\_test](http://en.wikipedia.org/wiki/Pearson's_chi-squared_test) (검색일: 2014.03.06.)  
<http://www.r-project.org> (검색일: 2014.03.06.)

<분석 텍스트>

- Hemingway, Ernest (2012) *The Old Man and the Sea*, 서울: 문학동네.
- 황찬호 (1958) 『老人과 바다』, 서울: 신양사.
- 김석주 (1959) 『바다와 노인(老人)』, 서울: 범조사.
- 황동규 (1975) 『노인과 바다』, 서울: 샘터사.
- 이인규 (2012) 『노인과 바다』, 서울: 문학동네.
- 김옥동 (2012) 『노인과 바다』, 서울: 민음사.



[Abstract]

**Corpus-Assisted Analysis of Deixis for Literary Translation:  
with Focus on the Vocative Form of Old Man in  
*The Old Man and The Sea***

Jo, Sue Ye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manner of deictic expressions, pointing to the protagonist of *The Old Man and The Sea* by Ernest Hemingway, translated from English to Korean, and provide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ccount of five (5) different versions of Korean translations from late 1950's to 2012. For these purposes, it uses a small-scale comparative parallel corpus and applies some corpus techniques. The translation of deixis is inevitably affected by the linguistic,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source language and the target language, as witnessed in the translation of ‘old man’, the most important and frequently used lexical cluster in the literature in question. As it turns out, a corpus-assisted approach can be effective in identifying what the key words are in a literature and how they are translated differently by translator and thus shedding a new light on various translation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pragmatics, because it is none other than the pragmatic nature of language which makes it unfavorable, if not impossible, to translate ‘old man’ as ‘old man’. This study also tries different translation strategies to find alternative solutions for translators to consider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In doing so, it follows the principle of optimal relevance.

▶ Key Words: English to Korean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ion, deixis, *The Old Man and The Sea*, corpus-assisted approach

조수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sueyeonjo@hufs.ac.kr

관심 분야: 화용론, 코퍼스 번역학, 담화분석

논문투고일: 2014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2일